

		<h1>보도자료</h1>		
				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총 3쪽(붙임 1쪽 포함)	
배포일자	2021. 11. 25(목)	담당부서	국제협력담당관실	
담당과장	안병기(042-481-4176)	담당자	사무관 이예지(042-481-4277)	

## 히말라야 산림 지도자(리더), 첸초 노르부, 한국에서 훈장 받다. - 아시아산림협력기구(AFoCO) 초대 사무총장, 국제개발협력 유공자 선정 -

- 산림청 (청장 최병암)은 부탄 출신 첸초 노르부(Chencho Norbu)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초대 사무총장이 국제개발협력 유공자로 선정되어 오늘 개발협력의 날(11.25) 기념식 행사에서 국무총리에게 수교훈장 흥인장을 받았다고 밝혔다.
- 국무조정실은 ‘개발협력의 날’(11.25)을 계기로 국제개발협력(ODA) 활동을 통해 수원국 국민 삶의 질 향상, 수원국과의 우호관계 증진 등에 기여한 국내외 유공자를 발굴, 선정하였다.
- 첸초 노르부는 한국 정부가 주도하여 설립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(AFoCO)에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간 초대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며 기구의 설립 초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운영의 안정화에 헌신함과 동시에 아시아산림협력기구(AFoCO)를 통한 한국의 산림부문 해외개발원조를 확대하는 데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훈장을 수여 받았다.
- \* 아시아산림협력기구(AFoCO,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) : 기후변화·사막화 방지 등 국제적 산림 현안에 대응하고 아시아에서 산림 분야 지도력(리더십)을 확보하기 위해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('09.6)에서 제안되어 설립('18.4)된 국제기구
- 첸초 노르부는 지난 2년간 아시아산림협력기구(AFoCO)가 유엔사막화 방지(UNCCD) 총회 인증기구 자격('19)과 유엔(UN) 총회의 참관인(옵서버) 자격('20)을 획득함으로써 국제기구로서 외연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며, 한국정부와의 본부협정 추진

(’20 서명), 기구의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등 단기간에 기구가 성장할 수 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하였다.

□ 또한, 아시아산림협력기구(AFoCO) 회원국들에 협력사업을 통해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녹화 경험 등 선진 산림정책을 전파하여 아시아 산림 발전에도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격 제고 및 산림부문의 위상 강화에도 적극 노력해왔다.

○ 산림분야 해외개발원조(ODA)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수원국 산림생태계 회복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, 한국의 신남방·신북방 정책 추진 등 외교기조에도 적극 대응하였다.

□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초대 사무총장 이전에도 부탄의 산림분야 전문가로서 약 18년간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으며, 다양한 기회와 역할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산림정책을 홍보하고 한국의 주도권(이니셔티브)를 지지하는 등 지속해서 한국의 국격 제고에 적극 이바지하였다.

○ 창원에서 개최한 유엔사막화방지협약(UNCCD)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한국이 주도한 창원이니셔티브 채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며, 2013년부터 부탄 측 수석대표로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(AFoCO)가 국제기구로 설립될 수 있도록 기술적, 전략적으로 적극 참여하였다.

□ 최병암 산림청장은 “한국이 제안해 발족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(AFoCO)의 초대 사무총장인 첸초 노르부가 한국정부에서 그 공을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”라며, “산림청은 기구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 나갈 예정이며, 앞으로도 아시아 산림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한다”라고 밝혔다.



붙임파일 : 기구 개요 1부  
첨부파일 : 해당 없음.



## □ 기구 개요

- 기구명 : 아시아산림협력기구(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)
- 설립목적 : 기후변화·사막화방지 등 국제적인 산림이슈에 대응하고 산림분야 아시아 역내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함
- 성격 : 국제적 합의(조약)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제기구
- 회원국 : 15개국(당사국 13개국, 옵서버 2개국)
  - \* 당사자(Party) 12개국: 한국, 베트남, 동티모르, 부탄, 미얀마, 캄보디아, 브루나이, 필리핀, 라오스, 태국, 인니, 카자흐('19.10~), 몽골 / 옵서버(Observer) 2개국: 싱가포르, 말련

## □ 주요 연혁

- 한국은 2009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AFoCO 설립 제안 ('09.6)
- 기구 설립을 위해 「한·아세안 산림협력협정」체결 ('12.8. 발효)
- 2014 한·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AFoCO 설립지지 ('14.12.)
- 14개국 산림 및 외교분야 참여로 협정문 최종(안) 채택 ('15.9.)
  - \* 한국, 아세안 9개국(말레이시아 제외), 카자흐스탄, 몽골, 부탄, 동티모르 참여
- 「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협정」발효 (조약 제2386호, '18.4.27)
  - \* 한국 포함 다섯 번째 국가 비준서 등이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
- 산림전문 교육기관인 RETC 교육훈련센터 설립 ('18.7. 미얀마)
- 제1차 AFoCO 창립총회 개최 및 전략계획 마련 ('18.11.12~13, 서울)
  - \* AFoCO 5개년 전략계획('19~'23) : ① 맞춤형 산림복원·복구 모델 창출 ② 기후변화 적응 분야 연구개발 지원 ③ 체계적 산림재해관리방안 도입 ④ 지역주민 생활 개선과 산촌 기반 소규모기업 육성 ⑤ 조직역량강화, 자원 다양화 및 역내 공동행동 촉진
- \*\* 2차 특별총회('19.4월, 경주) 및 AFoCO 고위급(장관급) 회의, 3차 정기총회('19.10월, 서울), 4차 정기총회 ('20.11, 화상), 5차 정기총회('21.10, 하이브리드) 개최
- 2019 한-아세안 및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AFoCO 설립 환영 ('19.11. 부산)
- UN총회 옵서버 지위 획득('20.12), OECD DAC 적격기구 등재('21.4)
-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발효('21.7)